

인천지역 어시장 찾아 상인들과 소통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수산물안전 릴레이(Relay) 현장 행보 이어가
-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수산물 드실 수 있는 환경 만들 것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16일(금) 인천 소래포구어시장을 방문하여 물가·소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수산업 종사자와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수산물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분야에 걸쳐 업계 간담회를 진행해 왔으며, 6월에는 유통·소비자단체와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 자갈치시장(6.1), 노량진수산물시장(6.2), 국제수산물도매시장(6.7), 인천종합어시장(6.8), 소비자단체(6.9), 부산공동어시장 등(6.13), 경남권 수산업종사자(6.14)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 바다의 수산물은 단 한 차례도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없다”라며,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으로 인해 어업인은 물론 수산업 전체 종사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과학에 기반한 소통과 정보 제공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말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수산물 안전을 확실히 책임질 테니, 수산전통시장 상인들께서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각별히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구도형 (044-200-5440)
		담당자	서기관	김윤이 (044-200-5447)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수산물안전관리과	책임자	과 장	최장원 (044-200-5940)
		담당자	사무관	김수정 (044-200-5803)